

건축사 보수기준 개정, 이렇게 생각한다

This is What I think—Revised of a Standard Architect Emolument

金泰雄/경북건축사회 회장

By Kim, Tae-Woong

지난해 연말에 개정 공고된 건축사 업무 보수기준 개정
 대해 그 인상폭이 크다는 이유로 대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큰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건축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열악한 보수기준과
 경직되고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은 현직의 회원 전체가 실감해
 왔으며, 꾸준히 그 부분의 개정과 개선을 요구해 온 바
 있었다.

이 요구사항들 중의 하나로 이번에 건축사 보수요율이
 다소 현실화된 것 같다.

이번 설계·감리 업무 및 보수기준의 대폭적인
 내용변경과 인상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몇가지 점에 대한
 의견과 느낀 점을 제시코자 한다.

• 설계·감리 보수요율의 인상배경

건축사 보수기준이 1975년에 개정된 이래 18년 동안
 한번도 개정된 바가 없었고, 물가억제정책에 밀려 정당한
 보수기준과는 관계없이 물가의 계수 조정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

그 결과 불합리한 결정의 누적으로 현실과는 큰 괴리를
 가진 보수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지적코자 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우수한 설계와 정당한 감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이상상황(異常狀況)을 체념으로
 받아들인 우리 회원들의 자세도 냉정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상하게도 건축사들을 중요한 사정(司正)의 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행정 쇄신위원회,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부실방지대책반에서 오히려 건축사
 보수요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할 말은 태산같으나 말을 해도 협의(協議)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본 협회의 위상(位相)이 자탄의 지경에
 이른 감이 있다.

이제부터 우리 주변과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일방적이 아닌 합리적이고 쌍무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차원 높은 관계의 전개를 바란다.

• 건축에 관련된 제도 건축주, 건축사, 건설업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의 계기를 마련하자.

건축주, 건축사, 건설업체의 삼위일체의 원만한 이해와
 협조, 국가의 훌륭한 제도의 정립 위에 훌륭한 건축이 창출
 된다는 원칙은 기본이다.

건축주의 이기심, 시공자의 무분별한 덤핑수주, 시공의
 책임감이 결여된 이윤추구에 의한 대다수의 불법시공과
 위법건물이 발생함에도 그 발생에 따른 사후책임은 형평에
 어긋나게 건축사들에게 무한에 가까운 책임을 요구하여
 왔다. 건축주는 서민보호 차원에서 건설업자는 책임이 없는
 무등록자이거나 건축사법과 형평이 어긋난 건설업법에
 의해서 구제(?)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제부터 어느 정도 현실화된 설계·감리보수를
 바탕으로 건축사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통해서
 불법건축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전기(轉機)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건축을 더 높은 차원의 원상회복의 기회로 삼자.

건축사 보수기준의 현실화의 목표는 지금까지 잘못된
 보수기준의 개정과 이로 인한 불법건축 양산의 근원적인
 방지에 있다. 대외적으로는 건축주의 이기주의가 법과
 규정을 무너뜨리고, 무면허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제도적
 모순을 악이용한 무분별한 이윤추구, 제도권 속의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국가건설의 주역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절실한 상황들을 외면한 채
 건축을 이윤추구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균형있게 병행되어야 한다.
 대내적으로 우리 회원들은 시대상황들을 지혜롭게 직시하고
 오늘의 상황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협회도 이러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전국 회원들에게

이제 거둬 태어나는 자세로 이 현실을 역사적 현실로 받아 들이는 혜안을 가지고 우리는 건축이라는 형이상학(形而上學) 속에 살아 간다는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맑은 눈매와 뜨거운 용기로 이 역사적인 책무를 다하고 후배들에게 훌륭했던 선배들로 기억되는 빛나는 세대로 남기를 바란다.

정확한 방향 제시와 확고한 의지, 강력한 추진력의 발휘를 촉구한다.

또한 건축에 관련된 전 분야가 협조하고 균형되게 발전되어 정의(正義)가 발현되도록 건축관계당국자들에게 권고한다.

이러한 조치도 정책수단으로 우선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건축의 중요성과 건축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가질 때, 이러한 저차원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은 도시계획, 건축, 지역개발의 원숙한 성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훌륭한 건축 속에서 드높은 이상과 존엄 속에서 살다가 후세(後世)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 훌륭한 건축들은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 남고, 건축을 통하여 심오한 철학과 꿈, 경륜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조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

• 자강(自強)과 자중자애(自重自愛)의 계기로 삼자.

전국에 있는 4천여명의 우리 회원들은 지금까지의 관행(慣行)과 의식(意識)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훌륭한 설계와 책임있는 감리를 통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들이 이 조국에 보편적으로 건축되는 새로운 이정표의 출발점에서 있다는 것이 나의 관점이다.

지금까지 겪어온 수 많은 지난날의 난제들을 되돌아 보면서 서글퍼지는 지난날의 관행과 의식을 넘어 서자. 그리고 이제부터 자기의 연찬과 탁마를 통한 자강(自強)과 자중자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지난날의 저차원의 일들로 고통을 받지 않고,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는 원래 건축사의 위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번에 개정 공고된 건축사 보수요율의 개정은 위와 같이 상당한 내용과 영향이 우리 건축사계에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제도의 정착(定着) 여부가 앞으로 여러 방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번의 보수요율이 잘 정착되고 발전된다면 지금까지의 건축사 내부의 모순과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발전이 모색되리라 예측된다.

올바른 설계와 감리를 통하여 건축의 질적인 발전을 기하여 우수한 건축의 창출이 가시화(可視化)되고, 경제적인 건축을 통한 국가의 이익이 예견되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사무소 운영에 급급했던 환경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본 협회의 분발을 다시 촉구한다.

우리 회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애로와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다.

이때에 본 협회는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신속하게 만들고 앞을 내다보는 혜안과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 같다.

어려운 때 일수록 그 조직의 지도자를 쳐다보고 방향설정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끝으로 지금과 같은 비상한 시점에서는 비상한 각오와 결단이 요구된다.

우리 협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튼튼히 발전되어야 하며 협회의 발전 동기는 우리 회원들의 발전과 보호에 있으며, 더 나아가 이 국가의 건축문화 창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의 건축을 책임질 우리 회원들의 의무는 너무나 막중하기에 이에 상응한 연구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따른 조치들 중에 이번 건축사 보수요율 인상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이제 거둬 태어나는 자세로 이 현실을 역사적 현실로 받아 들이는 혜안을 가지고 우리는 건축이라는 형이상학(形而上學) 속에 살아 간다는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맑은 눈매와 뜨거운 용기로 이 역사적인 책무를 다하여 후배들에게 훌륭했던 선배들로 기억되는 빛나는 세대로 남기를 바란다.